

보도시점 2025. 9. 4.(목) 15:00 (2025. 9. 5.(금) 조간)

폴리텍대학, 에너지 주권 시대 열어 갈 전력 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중심에 '전력기술교육원' 설립
- 2025년 하반기 전력설비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600명의 전력기술 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에너지 수도'로 불리는 나주의 산업 기반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입지를 바탕으로, 전력계통 운영 및 제어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등 주요 공기업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관계자도 함께해 120여 명의 내빈이 개원을 축하하고, 전력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총사업비 236억원과 장비비 70억원을 투입해, 15,764㎡ 부지에 연면적 5,050㎡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됐다. 교육원 2층에는 전력설비과, 3층에는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소방과가 위치한다. 전력수배전반 전체 구조와 운용 원리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전력IT수배전랩(LAB)을 비롯해, 실제 산업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과 강의실을 갖췄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전력설비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600명의 전력설비·신재생에너지·전기소방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을 확대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력 기술 전문가’ 배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전력기술교육원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전력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화를 책임질 차세대 전력기술 인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영 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차 장	박미선 (032-650-6742)
담당 부서	기획조정국 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태우 (032-650-6620)
		담당자	과 장	박기동 (032-650-6623)



□ **개원식 개요**

- **(일시)** '25. 9. 4.(목) 15:00~16:2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20)
- **(참석)**
 - 외부: 신정훈 국회의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나주시장, 나주시의회 의장, 한전 부사장 등 50여명
 - 내부: 이철수 이사장, V대학장 직무대리 등 70여명

□ **주요 내용**

- **(목적)** 전력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력기술교육원 개원식
- **(주요 내용)**
 - 준공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 전력기술교육원 실습실, 강의실 투어 및 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4	• 개회 및 내외빈 소개	
15:04~15:12	•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시청	
15:12~15:27	• 이사장 기념사 및 내외빈 축사	
15:27~15:30	• 기념촬영	
15:30~15:40	• 테이프 커팅식	
15:40~15:55	• 전력기술교육원 투어	
15:55~16:20	• 간담회(다과)	
16:20	• 행사종료 및 환송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조감도